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첫 해인 2020년 동남권 수출은 -15.9% 급락했다. 같은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5.5%와 비교할 때 하락폭은 약 3배에 달했으며 경제권역중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에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의 반등세를 시현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8.8%를 크게 밑도는 미약한 증가세이다.

동남권 수출은 대외충격 시기마다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도 이러한 패턴은 재현됐다. 전통 제조품목 중심의 편중된 수출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안정적 수출구조 마련을 위해 중화학제품 위주의 수출 생태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전산업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제품 수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친환경, 언택트 품목 수출 활성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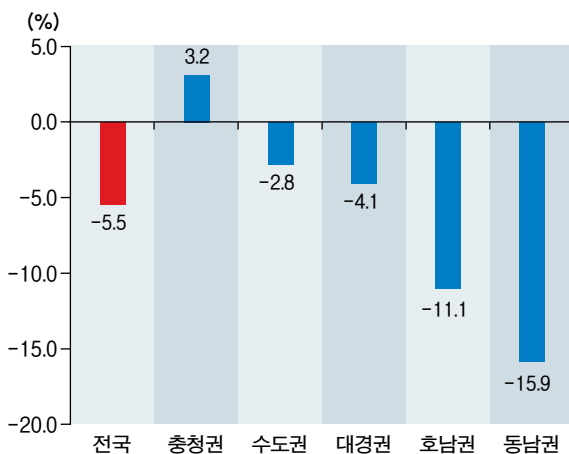
2020년 동남권 수출, 코로나19 충격으로 -15.9% 급락 동남권 전지역이 큰 폭의 감소율 기록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첫 해인 2020년 동남권 수출(금액기준)은 전년대비 -15.9%의 급락세를 기록했다¹⁾. 같은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5.5%)과 비교할 때 하락폭은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권역중에서도 동남권이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동남권을 제외하면 수출 감소율은 호남권(-11.1%)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대경권(-4.1%), 수도권(-2.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3.2% 증가하며 타 경제권역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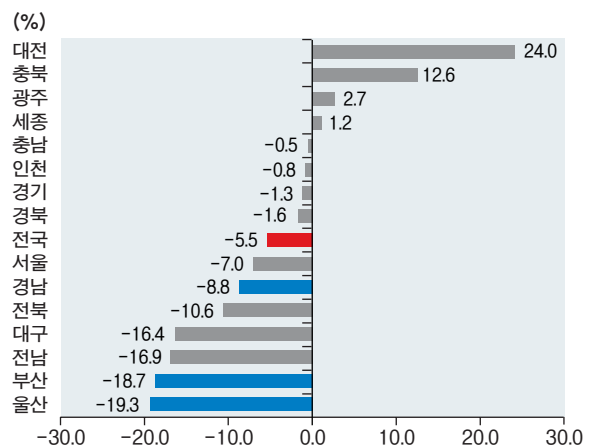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울산, 경남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19.3%)의 경우 전국 시도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18.7%)과 경남(-8.8%)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동남권 전지역 모두 전국 평균(-5.5%)보다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경제권역별 수출 증가율



주 : 강원권, 제주권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0년 시도별 수출 증가율



주 : 강원권, 제주권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2020년 전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요국 경제 봉쇄령,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등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

5대 주력 수출품목 모두 감소

2020년 동남권 수출실적 하락은 지역 총수출의 1/3을 차지²⁾하는 주력품목이 부진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5대 주력 수출품목 감소율(-20.4%)은 동남권 전체품목의 감소율(-15.9%) 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³⁾.

5대 주력품목별로 살펴보면 휘발유(-46.6%)와 경유(-39.4%)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 경제 봉쇄령 등으로 인적·물적 이동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부품(-21.4%)과 승용차(-18.7%)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부진했다. 또한 선박(-6.5%)도 인도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대 주력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경제권역은 동남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은 집적회로반도체, 전산기록매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일부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시현하며 지역 수출 충격 완화에 힘을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광역경제권별 5대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

전국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수도권		충청권	
집적회로 반도체	6.2	선박	-6.5	합성수지	-4.6	무선 전화기	-6.0	집적회로 반도체	11.0	집적회로 반도체	0.2
승용차	-16.7	승용차	-18.7	경유	-27.6	열연강판	-15.5	승용차	-23.4	평판 디스플레이	4.1
자동차 부품	-17.3	경유	-39.4	승용차	3.9	무선통신 기기부품	19.8	자동차 부품	-15.5	전산기록 매체	114.2
평판 디스플레이	-12.2	자동차 부품	-21.4	집적회로 반도체	3.8	자동차 부품	-18.4	평판 디스플레이	-30.1	축전지	-4.9
합성수지	-5.2	휘발유	-46.6	제트유및 등유	-51.0	냉연강판	-14.2	합성수지	-8.0	석유화학 중간원료	-46.1
평균	-4.4	평균	-20.4	평균	-11.4	평균	-7.3	평균	-4.7	평균	6.0

주 : 5대 품목은 2019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동남권 수출금액 1~5위 품목이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이며 이는 수도권(20.4%), 대경권(28.6%)보다는 높으나 충청권(57.1%), 호남권(47.5%)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

3) 본 연구의 수출품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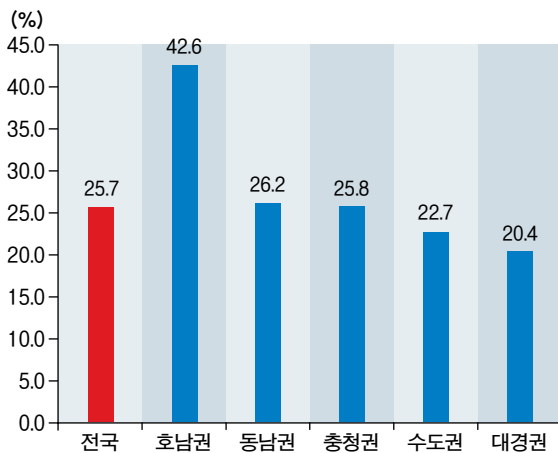
2021년에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반등세 시현 선박 제외한 주력품목 모두 증가세로 전환

코로나19 사태 2년차인 2021년 동남권 수출은 전년대비 26.2%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함께 세계경제가 2020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전국 수출은 25.7% 늘어나며 동남권과 비슷한 수준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권역별로도 전 지역이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호남권은 42.6% 늘어나며 동남권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⁴⁾. 다음으로 충청권(25.8%), 수도권(22.7%), 대경권(20.4%) 순으로 수출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주력 수출품목들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봉쇄령 해제 등으로 휘발유(131.4%), 경유(25.0%)가 늘어나고 북미, 유럽 등 주요국 판매 증가에 힘입어 승용차(27.4%) 및 자동차부품(12.0%)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박(-8.7%)의 경우 2018~19년 중의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며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경제권역별 수출 증가율



주 : 강원권, 제주권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1년 5대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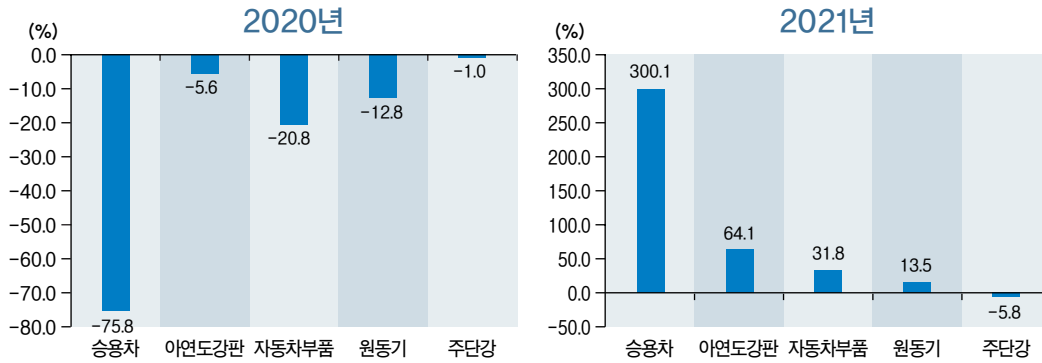
동남권 (%)		전국 (%)	
선박	-8.7	집적회로 반도체	29.7
승용차	27.4	승용차	21.9
경유	25.0	자동차부품	22.2
자동차부품	12.0	평판 디스플레이	18.9
휘발유	131.4	합성수지	51.8
평균	17.3	평균	28.8

주 : 5대 품목은 2019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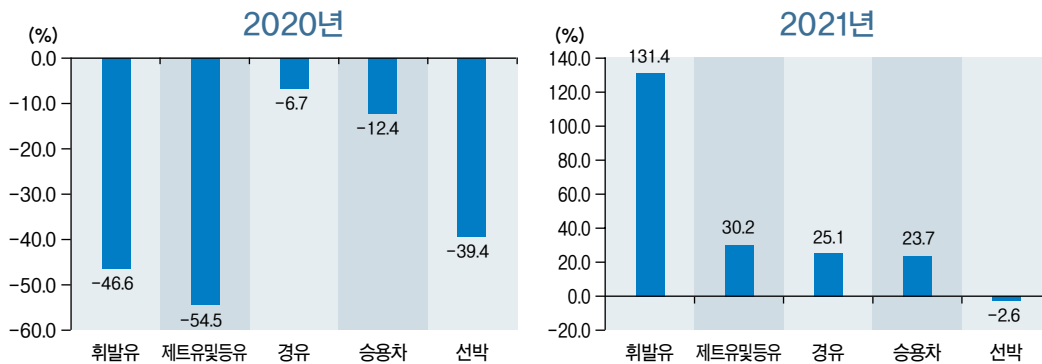
4) 호남권은 열연강판(156.5%), 냉연강판(140.2%), 기초유분(122.2%) 등이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

[참고] 동남권 지역별 5대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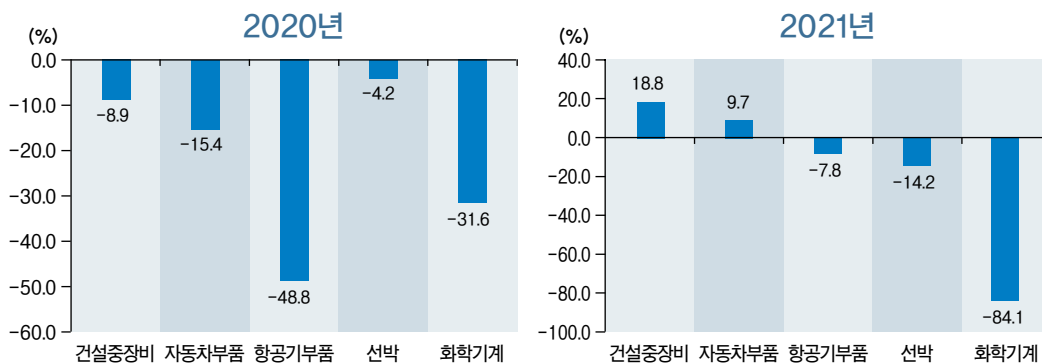
- 부산** : 2020년 -18.7% 감소, 2021년 30.9% 증가
 - 승용차, 아연도강판 등의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울산** : 2020년 -19.3% 감소, 2021년 32.5% 증가
 - 휘발유, 경유 등의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경남** : 2020년 -8.8% 감소, 15.0% 증가
 - 건설중장비 수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기타 주력품목 침체 지속



주 : 5대 품목은 2019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전후 수출 실적, 동남권이 경제권역중 반등세 가장 미약

2021년 동남권 수출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급락했던 2020년의 충격을 상쇄하며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2% 늘어나는데 그치며 전국(18.8%) 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권역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29.8%), 호남권(26.8%), 수도권(19.3%), 대경권(15.5%) 등 주요 경제권역의 2021년 수출은 2019년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의 부정적 영향에서 상당부분 벗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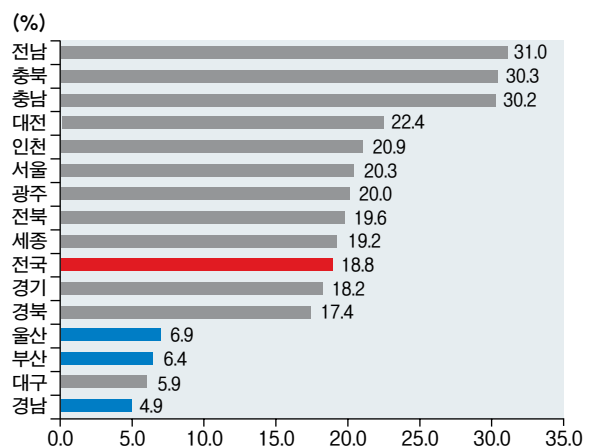
시도별로도 부산(6.4%), 울산(6.9%), 경남(4.9%) 전지역은 전국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31.0%), 충북(30.3%), 충남(30.2%) 등은 3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⁵⁾.

코로나19 전후 경제권역별 수출 증가율

구분	2019년	2021년	증가율 (억달러,%)
전국	5,422	6,444	18.8
충청권	1,074	1,394	29.8
호남권	525	666	26.8
수도권	2,121	2,529	19.3
대경권	452	522	15.5
동남권	1,228	1,304	6.2

주 : 강원권, 제주권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전후 시도별 수출 증가율



주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전남은 열연강관(112.8%)·냉연강관(103.3%), 충북은 의약품(1,626.0%)·기타정밀화학원료(167.4%), 충남은 전산기록매체(180.0%)·합성수지(83.2%)가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

선박·경유·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한 데 기인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할 때 동남권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인 것은 주력품목의 회복 지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동남권은 5대 주력품목의 2019년 대비 2021년 수출 증가율이 -6.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달리 같은기간 전국 5대 주력품목은 23.2%의 증가율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품목별로는 휘발유(23.6%), 승용차(3.6%)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유(-24.3%), 선박(-14.6%), 자동차부품(-12.0%)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전국의 경우 5대 주력품목은 모두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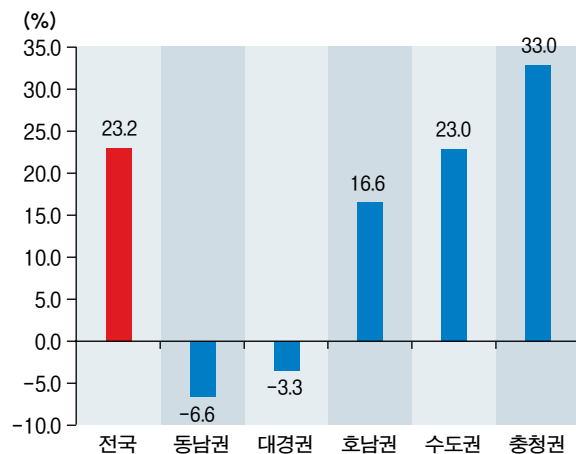
경제권역별로도 동남권(-6.6%)은 대경권(-3.3%)과 함께 5대 주력품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33.0%), 수도권(23.0%), 호남권(16.6%)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회복세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전후 동남권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백만달러,%)			
품목	2019년	2021년	증가율
승용차	18,218	18,866	3.6
선박	16,090	13,735	-14.6
경유	7,720	5,848	-24.3
자동차부품	6,840	6,019	-12.0
휘발유	3,825	4,728	23.6
합계	52,694	49,197	-6.6

주 : 5대 품목은 2019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전후 권역별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



주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2019년 대비 2021년 전국 1~5위 품목 수출 증가율(%)

· 집적회로반도체 37.8, 승용차 1.5, 자동차부품 1.1, 평판디스플레이 4.4, 합성수지 43.9

친환경 및 언택트 관련 제품 수출은 약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다만 사회·문화·경제 전반의 비대면,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품목들은 주목할 만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차 중심에서 친환경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자동차 수출이 70.7%가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이차전지 관련제품인 축전지(91.1%), 은(74.8%) 등도 큰 폭의 증가율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량 절감 추진으로 인해 동스크랩 수출이 증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기로에서 폐금속을 녹여 재활용하면 화석연료로 광물을 녹여 만드는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실내생활 비중 확대 및 위생·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의 수출도 늘어났다. 냉장고가 2019년 대비 2021년중 107.7% 늘어났으며 마스크·포장재 재료인 합성수지도 같은기간 4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증가율 상위 10대 품목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2019년	2021년	증가율	구분	품목명	2019년	2021년	증가율
1위	냉장고	755	1,568	107.7	6위	아연도강판	1,060	1,608	51.7
2위	동괴및스크랩	1,519	3,032	99.6	7위	기타석유화학제품	1,380	2,085	51.2
3위	축전지	1,228	2,347	91.1	8위	합성수지	3,274	4,876	48.9
4위	은	1,047	1,830	74.8	9위	윤활유	1,215	1,759	44.8
5위	전기자동차	1,560	2,663	70.7	10위	석유화학중간원료	1,398	2,005	43.5

주 : 2021년 수출금액 10억불 이상 품목 중 증가율 상위 순으로 정렬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동남권 수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코로나19 이후 주요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는 등 동남권 수출 활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2021년중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5대 대상국으로의 수출은 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증가율 20.4%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2년 동남권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남권 주력 수출대상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권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수입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5.4%p, -1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주요국 긴축 정책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도 동남권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망기관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⁷⁾.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분쟁 지속 등도 지역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전후 동남권 주요국 수출 증가율

구분	2019년 대비 (%)	
	동남권	전국
미국	24.0	30.8
중국	0.7	19.6
일본	3.8	5.8
베트남	-6.0	17.7
싱가포르	-28.1	11.0
평균	6.7	20.4

주 : 5대 국가는 2019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주요국 수입수요 증가율

구분	2021년 대비 (% , %p)		
	2021년 (A)	2022년 (B)	증감 (B-A)
미국	14.1	8.7	-5.4
중국	19.1	8.5	-10.6
일본	9.5	9.1	-0.4
베트남	-4.8	10.1	14.9
싱가포르	6.6	6.4	-0.2

자료 : IMF

7) 미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긴축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교역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위기에 취약한 동남권 수출, 품목 다각화로 안정적 구조 마련해야

동남권 수출은 대외 충격시기 마다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동남권은 -15.9% 하락하며 전국(-13.9%)보다 부진했으며 2015년 유가 급락시기에도 동남권(-14.4%)은 전국(-8.0%)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도 이러한 패턴은 재현됐다.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2020년중 동남권 수출은 전국(-5.5%)보다 부진한 -15.9%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전통 제조업 품목 중심의 편중된 지역 수출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동남권은 기계, 화학, 철강, 금속 등 중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안정적 수출구조 마련을 위해 중화학제품 위주의 수출 생태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전산업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제품 수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동남권은 오랜기간 주력품목 다각화의 요구가 있어 왔으나 여전히 첨단 제품의 수출 비중이 7.1%로 전국(36.3%)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친환경, 언택트 품목 비중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무관하게 친환경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택트 수요는 소멸이 아닌 컨택트 수요와 공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기시기별 동남권 수출 증가율

시기	증가율 (%)	
	동남권	전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15.9	-13.9
2015년 (유가 급락 시기)	-14.4	-8.0
2020년 (코로나19 시기)	-15.9	-5.5

주 : 전년대비 수출금액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품목분류별 수출비중

구분	수출비중 (%)	
	동남권	전국
첨단제품	7.1	36.3
중화학제품	72.7	49.0
기타	20.2	14.8

주 : 1) MTI 1단위 기준
2) 첨단제품 : 전기전자제품
중화학제품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2022년 글로벌 교역 전망,” 2022.1
 산업연구원,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1.12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2022.1
 한국금융연구원, “2022년 경제전망,” 2021.12
 한국무역협회,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2021.11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2022.1
 한국은행, “향후 글로벌 경기를 좌우할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2021.12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IMF, www.imf.org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	-----------------------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1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